

## 이즈모오야시로 신사: 창건

‘이즈모오야시로와 신들의 땅의 제사’ 전시는 박물관과 인접한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의 역사와 건축, 제사 등을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의 주제신(主祭神, 신사의 중심이 되는 신)인 오쿠니누시는 농업과 건국, 인연 맺기(사람 사이의 유대)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인연 맺기란 부부나 이웃, 동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농가의 풍작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좋은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의 창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등장하는 구니유즈리 신화(천상의 신이 이즈모의 신들에게서 나라를 물려받았다는 신화)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즈모노쿠니 후도키(出雲国風土記, 8 세기에 지역의 전승 등을 기록한 서적)에는 신사의 창건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 세기에 쓰인 이러한 자료들은 이즈모오야시로 신사를 오래전부터 중요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즈모오야시로 신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건되었는데, 본전은 일본의 고대 주거 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다이샤즈쿠리 양식을 중심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맞배지붕 형식의 다이샤즈쿠리 양식은 박공벽(삼각형의 벽면)에 계단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쓰마이라라고 부릅니다. 또한, 다이샤즈쿠리 양식은 기둥을 세워 바닥을 높게 올린 것(고상식)이 특징입니다. 박물관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기원 1 세기경 토기는 이러한 고상식 건축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인근 돗토리현에서 출토된 토기에는 기둥을 세운 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야요이 시대(기원전 800 년~서기 300 년)부터 이즈모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야요이 시대에 만들어진 소용돌이 문양의 구슬(곡옥)과 청동으로 만든 미늘창(청동 미늘창)이 신사 주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곡옥은 지금의 호쿠리쿠 지방에서, 청동 미늘창은 규슈 북부 지방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두 출토품 모두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점에서 고대 이즈모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요이 시대의 제사에서 동탁과 동검을 매장한 흔적들이 인근 유적에서 발견된 것도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고대의 본전은 높이가 48m 에 이르는 웅장한 건축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0 세기, 귀족 자제들을 위한 교과서 『구치즈사미』에는 이즈모오야시로 신사가 나라 지역의

도다이지 절 대불전 및 교토의 조정 행정기관 건물과 함께 당시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시실 중앙에 설치된 1/10 크기의 대형 모형은 10  
세기 당시의 이즈모오야시로 신사를 재현한 것입니다.